

SK그룹, 2014년 가치 300조원 목표

김창근 회장, 신년회에서 도전 강조 ... 반도체사업 외에는 대부분 부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의장은 1월2일 “새해는 자율책임과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로 SK기업가치 300조원에 도전하자”고 말했다.

SK그룹은 1월2일 서울 광장동 W호텔에서 김창근 의장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 구자영 부회장,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김창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3년 SK는 외형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경영성과를 거뒀으나 반도체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부진했고 글로벌 경제 침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어려웠던 해였다”고 말했다.

김창근 의장은 “SK의 성장을 주도해왔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열정을 바쳤던 최태원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아픔이 더 크다”며 “SK그룹의 행복을 출발점으로 해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SK 고유의 추구 가치인 <이해관계자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1/03>